대학도서관 장서개발담당 사서의 전문성 역량에 관한 질적 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the Professional Competencies of Collection Development Librarians in Academic Libraries

장 덕 현(Durk-Hyun Chang)**

〈목 차〉

Ⅰ. 연구의 필요성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자료수집
3. 자료분석
4. 제시된 가이드라인
Ⅳ. 장서개발 담당사서의 전문성 요건
Ⅴ. 결론
1. 요약
2. 제언

초 록

이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에서 장서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들의 인식을 토대로 장서개발 사서가 전문가로서 지녀야 할 전문성의 요건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4년제 대학도서관에서 장서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8명의 사서들을 대상으로 질적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문헌정보학 지식, 주제분야 배경지식, 그리고 사서로서의 정체성이 상위 범주로 제시되었고 그 아래 총 13개의 하위범주와 37개의 의미단위가 제시되었다. 이를 통하여 이 연구에서는 장서개발 담당 사서의 전문성에 대한 이론적인 요건과 실제 현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요소들을 종합함으로써 향후 장서개발 담당 사서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구축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키워드: 대학도서관, 장서개발, 사서, 전문성 역량

ABSTRACT

The study aims at identifying professional competencies of collection development librarians in academic libraries. For this, the study collected data through qualitative interviews with 8 librarians who are in charge of collection development programs in four-year university libraries. As a result, the professional competency components emerging from interviews were divided into three parts; knowledge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knowledge in subject field, and professionalism. Detailed components of three parts of professional competency were divided into 13 sub-categories, with 37 meanings. It is expected that the study as an exploratory research may provide further research to design educational and training programs for collection development librarians with basic data.

Keywords: Academic library, collection development, librarian, professional competencies

---

이 논문은 2014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dchang@pusan.ac.kr)
•논문접수: 2015년 11월 20일 •최초심사: 2015년 12월 1일 •게재확정: 2015년 12월 7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4), 227-244, 2015. [http://dx.doi.org/10.16981/kliss.46.201512.227]

Ⅰ. 연구의 필요성

도서관의 장서는 도서관이 소장 및 관리하고 있는 자료의 집합으로서 도서관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장서를 통해 도서관의 정체성이 대변된다고 볼 수 있으며, 도서관 서비스의 성패는 소장 장서의 규모와 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 장서의 질과 양에 따라 이용자를 도서관으로 이끌 수도 있으며, 이용자들의 가장 큰 불만요인이 장서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서관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 장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대학도서관의 장서는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깊이 있는 연구활동의 밑거름이 된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은 대학 구성원의 교육과 연구를 위한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양질의 장서를 구비한다. 장서는 우연히 축적된 자료의 집합이 아니라 장서개발을 담당하는 사서의 지식과 전문적 활동의 결과로서 체계적, 망라적으로 구성된 지식자원의 총체이다. 여기에서 장서개발은 장서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장서구성의 균형을 유지하는 전문적인 활동이다. 따라서 장서개발을 담당하는 사서는 주제분야 이용자에 대한 이해와 함께 특정 주제 분야에서 생산되는 정보의 양과 질, 범주, 내용, 경향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사서가 대학도서관에서 장서개발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제 분야 전반에 걸친 폭넓은 이해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데, 서구의 대학도서관에서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된 제도로 주제전문사서 제도를 들 수 있다. 즉, 서구의 대학도서관에는 주제배경과 문헌정보학 지식을 동시에 가진 주제전문가(Bibliographer) 제도를 운영하면서 주제전문사서들이 장서개발과 참고봉사, 그리고 학과에 대한 리에종서비스까지 모두 맡아서 활동하는 제도가 정립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경우 이러한 주제전문사서 제도가 뿌리를 내리기는 아직 요원하다.

이렇게 본다면 특히 대학도서관에서 장서개발을 담당하는 사서는 단편적인 지식이나 자신의 경험에 의해 축적된 식견보다는 주제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대학의 교육과 연구를 지원한다는 사명감과 다양한 분야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지적 자유에 대한 존중감 등도 갖추어야 한다. 장서개발 담당 사서가 전문성을 확보하면 이것이 궁극적으로 도서관 장서의 수준과 효과성을 보장하며, 더 나아가 정보서비스와 사서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도 한층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해외에서는 장서개발 담당 사서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가이드라인이나 프로그램을 디자인하여 공개하고 있다(ALA, 1996).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장서개

발, 자료조직, 정보서비스 등 사서의 직무에 따른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이 연구에서는 장서개발 사서가 전문가로서 지녀야 할 전문성의 요건들을 일별하여 종합한 후 실제 대학도서관의 장서개발 담당 사서가 전문성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기반으로 그 직무와 역할에 맞는 전문성 요건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장서개발 담당사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요소들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포괄적 범주로만 제공되고 있는 장서개발 담당 사서를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보다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Ⅱ. 이론적 배경

전문성이란 전문직(profession)을 구성하는 속성으로, 일반적으로 오랜 기간 집중적으로 습득한 전문지식이나 기술, 경험적으로 터득한 업무방식, 누군가에게 지시받는 것이 아니라 독창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권한, 자타가 공인하는 권위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본다. 기본적으로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지식과 기술은 전문직을 수행하면서만이 아니라, 이론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교육과정으로 습득되어야 한다. 아울러 대학이나 다른 인정된 기관으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테스트되고,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의 권위를 갖도록 한다. 따라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종 즉, 전문직은 이론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훈련과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고, 구성원들의 능력이 시험되는 제도가 확립되어 있어야 하며, 조직을 구성하고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타인을 위한 봉사정신이 요구된다는 특성을 지닌다. (한국문헌정보학회, 2013)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도 전문성에 대한 논의는 활발한데, 대표적으로 정보전문직으로서의 사서에게 있어서 전문성이란 정보와 정보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로서,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올바른 고객에게 적절한 자료에서 적합한 정보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장 적합한 형태로, 아울러 이용을 합리화할 수 있는 비용으로 제공하는 전문기능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것(Mason, 1990)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장서개발 담당 사서는 장서개발정책의 수립자, 장서프로그램 운영자, 평가자로서 장서개발 과정 전반에 주된 영향을 미치며 이들의 전문성은 궁극적으로 장서의 효과와 이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장서라는 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킴으로서 도서관 장서의 힘과 가치를 증명하는 전문가이기도 하다.

장서개발 담당 사서가 이러한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인 반면 그 전문성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 또한 사실이다. 사서의 전문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직무태도나

직무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거나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연구가 많다. 예를 들어 김성준(2010, 2013)은 사서교사의 전문성 신장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외 대표적인 사서교사 전문성 기준을 분석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사서교사 전문성 기준을 적용하여 현장 사서교사들의 전문성 수준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사서교사들은 도서관 실무와 관련한 전문성보다 학교도서관의 교육 및 경영과 관련한 전문성을 더욱 중요시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연옥(2005)은 어린이사서의 자질 및 역할을 중심으로 어린이사서 양성실태를 분석하여 어린이사서의 전문성 내용을 제시하고 전문성 개발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문헌정보학 교육과정과 계속교육과정의 정비와 강화, 어린이 서비스 분야 연구의 활성화, 관련 기관 및 관련 학문 분야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제시하였다. 박옥남(2011)은 정리사서에게 요구되는 자격요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바 있는데, 대전, 충남지역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 사서 37명을 대상으로 목록 및 분류지식, 도서관정보화 시스템, 자료유형, 메타데이터 유형, 전거통제, 외국어 능력, 컴퓨터 능력, 인성 및 관리 능력, 목록교육에 대한 만족도, 목록교육의 개선점 등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자질을 갖춘 자료조직 담당 사서를 양성하기 위한 목록교육의 시사점을 논하였다.

이렇듯 문헌정보학계에서도 사서와 사서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활동인 장서개발 담당자의 전문성 요건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국내 4년제 대학도서관에서 장서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사서들을 대상으로 장서개발 담당사서가 지녀야 할 전문성 요건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 장서개발 담당사서의 전문성 요건을 제시하였는데, 그 근거는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가 제시한 장서개발담당사서 훈련 가이드라인(Guide for Training Collection Development Librarians)에서 도출하였다.

이 구성요소들을 현재 국내 대학도서관에서 장서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사서들에게 제시하고, 이 요건들에 대한 건별 의견과 사서들의 의견, 보완되어야 할 점과 추가되어야 할 내용, 그리고 관련 의견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표본은 의도적 표집에 의하여 수집하였다. 의도적 표집은 질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비확률적 표본모집방법으로,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를 의도

적으로 선정하여 연구에 가장 적합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 연구대상은 모두 8명으로, 현재 국내 4년제 대학 도서관에서 장서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서들이었다. 대학도서관에서 최소 5년에서 최고 22년에 걸친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어 연구대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서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 정보

구분	성별	경력	최종학위
사서 A	여	16년	학사
사서 B	여	7년	학사
사서 C	여	5년	학사
사서 D	여	8년	석사
사서 E	여	14년	학사
사서 F	여	8년	석사
사서 G	여	11년	석사
사서 H	여	22년	학사

2. 자료수집

자료는 주로 <표 1>의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즉, 의도적으로 표집한 연구 참여자와 개별면담을 실시하고 그로부터 인식에 기반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은 도출된 장서개발 담당자의 전문성 기준을 기반으로 하여 반구조화된 형태로 진행되었다. 상황이나 수집된 자료의 정도에 따라 여러 차례 면담을 시행하고 부족한 자료는 전화로 확인하고 보완하였다. 면담 시간은 평균 2시간 정도로 특별히 시간을 제한하지는 않았다. 면담의 내용은 동의를 구하고 녹취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5년 8월부터 10월 초에 걸쳐 진행되었다. 수집결과 약 1천분 가량의 녹음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들을 텍스트화 하는 작업을 병행하였다.

3. 자료분석

면담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NVivo10을 활용하였다. NVivo는 QSR사에 의하여 1995년에 개발된 질적 자료 분석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서 연구 참여자의 관점에 의거하여 자료의 범주화 및 조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NVivo를 사용하면 텍스트를 단어, 구, 문장 단위로 코딩하고 범주를 형성함으로써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구축할 수 있다.

실제 자료분석 과정에서는 우선 녹취된 텍스트를 NVivo10 파일로 저장한 다음, 개별 파일

을 읽으면서 의미있는 단어, 구, 문장, 단락들로부터 주요 개념을 추출하고 주제 내용을 연결하여 독립적인 노드로 코딩을 실시하였다. 노드가 설정되면 리스트를 검토하여 유사한 노드들을 묶고 계층화하는 bottom-up 방식으로 코딩하고, 코딩 완료 후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는 노드들을 결합하여 의미를 도출하였다. 1차 코딩결과 총 917개의 노드가 생성되었는데 노드의 명칭은 중복 언급된 핵심단어들을 사용하여 부여하였다. 각 의미에 따라 코딩된 노드를 정리하여 장서개발 담당사서들이 인식하고 있는 전문성의 요건과 범주를 도출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2차 코딩을 실시하고 계층적 범주화 과정을 거쳐 결과적으로 총 37개의 의미단위를 도출하고 이들을 13개의 하위범주로 묶었다. 이들 하위범주들은 결과적으로 3개의 전문성 요건의 상위범주에 소속되었다. 또한 전문성 요건을 도출하는 작업 중 응답자의 전공배경이나 경력 등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하여 각 다큐먼트의 속성 값을 비교하며 분석하였다.

4. 제시된 가이드라인

미국도서관협회(ALA)는 장서개발 담당 사서의 역할과 직무분석에 근거하여 장서개발 담당사서의 교육훈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전문성은 특정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경험과 훈련을 통해 습득한 능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업무상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가적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기개발을 함으로써, 스스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권위를 인정받으며, 윤리의식과 소명의식을 갖추고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장서개발 담당사서는 장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파악하며, 주제별 정보자원의 발굴 및 평가, 개발, 계획 등을 수행하는 역할, 장서개발의 실무를 수행하고 장서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 장서관리자로서의 역할, 개발된 장서나 매체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이용자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는 장서평가자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문성 이론과 장서개발 담당사서의 역할과 직무를 결합하여 개발된 ALA의 장서개발 담당 사서의 전문성 요건을 보면 주제분야 지식과 자질, 장서개발 업무와 운영 능력, 자료선정과 장서평가 전문성, 전문적 권위 인정, 전문직 공동체, 책임감과 사명의식 14개의 영역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Ⅳ. 장서개발 담당 사서의 전문성 요건

장서개발 담당사서의 전문성 요건을 도출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으로 참여한 8명의 사서들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개별면담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표 2>에 정

리된 장서개발 담당자의 전문성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을 묻는 것으로 면담을 시작하였다. 제시된 가이드라인에서 장서개발 담당 사서의 전문성 요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요소와 보완 또는 추가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요소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반구조화된 면담이 진행되었다. 면담 중에 여러 차례 추가질문이 제시되었으며, 평균 1시간 30분에서 2시간 가량이 소요되었다.

<표 2> 장서개발 담당사서의 전문성 요건

기본 요건	세부 요소
윤리적, 법적, 문화적 고려사항	-장서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사명감과 윤리의식 -기관의 사명에 대한 이해 -저작권, 지적 자유 등에 관한 법적 지식
기획력	-도서관 장서개발에 관한 중장기 계획과 전략 수립 능력
장서개발정책에 대한 지식	-주제별 장서개발정책 입안 및 조정 능력 -기존 장서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이해 -주제별 장서의 목표수준에 대한 이해(conspectus 등)
자료선정 능력	-집서 수준과 범주에 대한 이해 -자료선정도구에 대한 이해
어프루벌 과정 이해	-벤더, 출판사 등에 대한 이해
예산에 대한 지식	-예산 배정 구조와 예산 확보 방법에 대한 이해 -주제분야별 예산 배정 원칙
도서관조직 운영에 관한 지식	-도서관조직 이해
마케팅, 아웃리치, 커뮤니케이션 능력	-마케팅 역량 -주제분야 리에종 능력, 컨퍼런스 조직 능력
주제에 관한 지식	-주제분야 지식 -해당 분야 출판동향과 신규출현 분야 파악
전자자원에 관한 지식	-주제분야 전자출판물에 관한 지식
장서평가에 관한 지식	-장서평가 방법에 관한 지식 -장서평가 관련 기준, 법제에 대한 지식
장서폐기에 관한 지식	-장서폐기 관련 법제와 기준에 관한 지식
자료보존에 관한 지식	-장서의 역사, 수명, 노후화 정도에 관한 지식 -자료보존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기부, 기증 확보 능력	-기부, 기증 확보 능력

정리된 녹취록을 대상으로 Nvivo10을 이용하여 텍스트에 의미를 부여하고 범주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 결과 생산된 917개의 노드를 의미에 따라 분리하고 묶는 작업을 거친 결과 장서개발 담당 사서의 전문성 요건에 대한 상위범주로 문헌정보학 지식, 주제분야 지식, 직업적 정체성의 3개 범주가 생성되었다. 그 아래 총 13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그 아래에 37개의 의미단위가 도출되었다. 면담 시 앞에서 제시된 장서개발 담당사서의 전문역량을 제시하고 면담을 진행하였지만, 제시된 가이드라인과 사서들이 제기한 요건들 간의 연관성은 고려하지 않고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을 시행하였다.

1. 문헌정보학 지식

우선 연구에 참여한 사서들은 '좋은 사서'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면서 전공(문헌정보학) 지식이 도서관 업무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장서개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자료 자체에 대한 지식, 이용자에 대한 지식, 변화하는 정보환경에 대한 지식과 적응 능력, 문헌정보학 학위와 전공분야별 정통한 지식, 사서로서의 경험적 지식, 그리고 특히 자료보존과 폐기 등에 관한 도서관 법제, 도서관계 동향 등에 대한 이해가 하위범주로 도출되었다. 특히, 자료에 대한 지식과 장악력, 선정대상 자료를 치밀하게 검토하는 능력, 책을 좋아할 것, 국내외 출판 동향에 대한 관심, 이용자에게 적합한 자료를 선정하는 능력, 서평 매체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다.

> 사서는 자신이 모아 놓은 책(도서관의 장서를 말하는 것)으로 말하는 사람이다. 책을 좋아하고 책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서 B)

선정 대상이 되는 자료를 직접 검토하고, 정확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에 가장 많은 동의가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장수서나 실물수서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쏟아지는 출판물 속에서 해당 도서관에 가장 적합한 자료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서평매체 등 선정도구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서평매체에 대한 지식 뿐 아니라 신문기사나 언론보도, 인터넷 서점, 뉴스레터 등의 매체를 통하여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대답이 많았다. 특정의 책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지는 못해도 '제목을 들으면 대략 내용은 말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사서(사서 A)'라고 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이용자에 대한 지식이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사서는 자료에 대한 지식과 이용자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지탱된다는 원칙을 다시 강조하고 있었다. 이용자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에서부터 이용자연구 등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주제분야 이용자의 정보요구와 정보행태 등에 대한 지식도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용자들의 정보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용자 응대와 상담 기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주제분야 장서개발을 위해서 이용자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은 8명의 사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었다. 장서개발의 책임자, 도서관과 학과 사이의 리에종 역할을 하는 사서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이러한 역할에 전문성을 결합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사서가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문헌정보학 전공의 깊이가 중요하다는 점도 많이 강조되고 있었다. 이는 단순히 어떠한 공부를 하였는가를 넘어, 문헌정보학을 어디에서 어느 정도로 이수하였는지, 대학원 석, 박사 과정을 거쳤는지 등의 요소와 장서개발에 있어서 새로운 기법이나 동향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자기계발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등이 강조되는 형태였다. 이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교육이나 KERIS의 라이센싱 전문가 교육 등 계속교육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였으나,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장서개발, 자료조직, 전자자원, 라이센싱 등 전문영역에 보다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적인 답이 되돌아왔다. 반면, 지속적인 학습 또는 이공계 분야 지식 습득에 대한 부담 등을 내비치는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면담과정에서 사서들이 강조한 부분으로 사서로서의 경험을 들 수 있다. 자료와 이용자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풍부하다고 하더라도 장서 관리를 맡아오면서 축적된 경험과 학과와의 라포(rapport)가 없다면 실무적인 차원의 성공이 어렵다고 보고 있었다. 사서로서 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장서의 개발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대답한 반면, 대학도서관의 장서개발 업무는 어느 정도 경력이 갖추어진 사서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대학 내에서의 위치가 어느 정도 형성된 이후에야 학과 등과의 관계가 좋아졌다고 이야기하는 사서들도 있었다. 동일한 주제분야를 오래 맡아 장서개발 업무를 담당할수록 경험이 풍부해지고 이야기도 통한다는 것이다.

> 경험이 쌓이면 전문가가 된다고 본다. 주제분야를 맡아 오랫동안 운영하는 그런 경험이 중요하다. 나이가 들면서 해당 분야 교수들과의 공감대도 넓어진다. 경험이 풍부하면 좋다.(사서 E)

장서개발 담당 사서가 장서를 개발하고 관리할 때 문헌정보학의 이론적인 지식 체계만을 강조하고 주제분야의 상황이나 이용자의 행태적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장서의 실효성은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이런 이유로 사서들은 실제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론적 지식 못지않게 개인의 경험과 학과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험적 지식이 장서개발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장서개발을 진행하며 습득된 경험적 지식 뿐 아니라 학과와의 개인적인 유대관계도 사서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장서개발의 효과가 높아지며, 이것이 장서개발 담당자로서 전문성에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었다.

2. 주제분야 지식

장서개발 담당 사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조합하여 해당 주

제분야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장서구성을 실현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학도서관에서 장서개발을 담당하는 사서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건으로 도출된 것은 주제분야에 대한 지식이었다. 이는 현재 장서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사서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요건이기도 하였다. 조사에 응한 사서 8명 가운데 2명은 학부에서 문헌정보학이 아닌 다른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이었고, 상대적으로 경력이 짧은 2명은 학부에서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이수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사서들은 장서개발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주제분야에 대한 공부도 하고 학과와의 연계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주제분야 배경 지식이 있거나 서양의 도서관 사례와 같이 주제전문사서를 채용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교육의 여건이나 도서관 상황을 고려할 때 어렵지 않겠느냐는 반응이 많았다. 강한 반대도 있었다.

연구참여자들과의 면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 그룹에 가장 적절한 장서개발을 위해서는 주제분야의 배경 지식, 주제분야 장서프로그램 운영 능력, 확립된 장서평가 기준,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숙련도가 전문성을 구성하는 주요 범주로 도출되었다.

우선, 주제분야 자료 선정 능력을 꼽을 수 있다. 장서개발 담당 사서들은 서지나 서평 등의 선정도구보다 직접 서점을 돌아다니며 현장수서, 실물수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학과의 교과과정이나 강의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선정 대상 자료 리스트를 만들고 있었다. 선정에 참고하는 선정도구들은 많이 알려진 출판사의 목록이나, Choice 등의 정보원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스스로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연구하며 자료를 선정하고 있었다.

면담에 응한 사서의 대부분은 장서개발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학과 또는 해당분야 이용자들로부터의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피드백을 요청하거나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학과와의 정기적인 위원회 등을 통하여 장서개발 과정에서 학과의 의견이나 생각이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현실의 상황은 도서관운영위원회나 자료선정위원회 등을 통해서 단과대학별 의견 수렴을 받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장서평가에 있어서도 장서개발 담당 사서에게 있어서 평가가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주요 요건으로 제시하였다. 장서평가에 있어서 사서들이 제기한 요건은 장서평가의 방법과 장서평가 결과 환류에 관한 내용이었다. 즉, 장서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평가 매뉴얼 작성과 결과보고서 작성과 기록 등의 내용이었다. 장서개발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매우 중요하므로 평가가 구체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 자료 선정과 프로그램 운영 방식 등이 적절하였는지 검토하고 이후 장서개발에 반영하여 장서 수준이 계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장서개발 담당사서로서 장서평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를

내용으로 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장서개발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으로 도출하였다.

담당사서의 숙련도도 장서개발에서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숙련도는 앞서 제시된 전공지식 범주에서도 '경력' 하위에 등장하였는데, '주제배경'에서도 다시 강조되고 있었다. 이는 장서개발 프로세스를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장서점검이나 평가, 보존과 폐기 등에 관한 보고서를 생산하고 이를 토대로 학과 등과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지되고 있었다. 이를 통하여 장서개발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고 장서개발이 전문적으로 수행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긴 경력을 가진 사서들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험이 쌓이고 이론적 지식을 실무에 적용하면서 숙련된 사서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대학원에서 타 전공 공부를 하기도 하고 동시에 지식과 연륜이 축적되었다고 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사서로서의 경험이 길수록 숙련도에 대한 중요성 언급이 많았으며 이러한 숙련성이 전문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력이 쌓이고 학과와의 관계가 이어질수록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또 아무래도 교수들과 잘 알게 되고 친숙해지니까, 자료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고, 최근에 어떠한 분야 연구가 활발한지, 교과과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대응방법도 알게 되고 그렇죠.(사서 H)

주제분야 지식의 경우 해당분야의 학위가 있는지, 전공을 하였는지 등의 외형적 범주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맞는 장서를 개발하는 능력, 자료 선정의 기준, 능동성과 커뮤니케이션, 리에종 기능, 학과에 대한 이해 등 내재적 범주들도 많이 표현되었다. 학과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장서개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이러한 인식은 장서개발을 담당하면서 숙련된 사서, 학과와의 유대관계 등 주제전문가로서의 숙련도라고 하는 뜻밖의 범주로 구성되기도 하였다.

숙련도가 높은 응답자일수록 결과에 대한 집중도보다 과정에 대한 집중도가 더 높았으며, 계획에 의한 교과서적인 장서관리보다 요구나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유동성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보고 있었다.

3. 직업적 정체성

마지막으로 도출된 범주는 사서 혹은 장서개발 담당 사서의 직업적 정체성이었다. 사서들은 책을 다루고 책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것을 직업적 정체성과 연결시키고 있었다. 즉, 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자료를 선정, 관리, 평가하는 사서로서의 정체성, 장서개발 전문가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사서의 전문성에 대한 도서관내, 외적 인정을 하위 범주로 설정할 수 있었다.

직업적 정체성 및 자부심 범주에서는 사서로서의 정체성, 장서개발 담당자로서의 자부심, 전문성에 대한 인정이 범주화되었다. 사서의 정체성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으로는 사서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 그러나 현실적인 한계에 대한 대처능력이 범주화되었다.

> 다른 업무와 달리 장서개발은 아무에게나 인수인계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럴 때 자신만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인정받게 되고, 전문가라는 생각이 든다. (사서 F)

장서개발 담당자는 도서관 내에서도 스스로 전문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장서개발 담당자로서의 정체성은 근본적으로 사서의 정체성과 결부되어 인식되고 있었다. 사서에게 장서개발은 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스스로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었다. 자료의 외형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장악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대학도서관 이용자와 소통하는 전문가, 장서개발 업무를 맡으면서 사서의 전문성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 한 사서들도 다수 있어서, 이러한 인식이 중요한 요건으로 제시되었다. 반면 시간부족, 주제분야 지식 부족, 재정적 한계 등으로 사서의 역할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현실적 한계에 대한 대응능력도 중요한 요건으로 도출되었다.

책임감도 중요한 요건으로 나타났다. 장서개발 담당사서의 책임감은 장서개발의 효과와 직결된다. 면담에 참여한 사서들은 이러한 책임감이 사서로서의 윤리의식과 결부된다고 말하였다. 책임감과 사명의식, 윤리의식 등이 그 구성요소로 언급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자신이 가진 지식을 넘어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런 의식이 장서개발 담당사서의 전문성 요건에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었다.

장서개발 담당사서는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바탕으로 장서개발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전문가로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실제로 장서개발을 담당하는 사서들은 학과의 교수들이나 연구원들로부터 전문성을 인정받음으로써 사서로서의 자부심을 느낀다고 답하였다.

> 학과 교수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후), 사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어요. 비로소 전문가로 인정받는 거 같고 보람을 느껴요. (사서 C)

사서가 자료를 제공하거나 연구지원 서비스를 수행함으로써 사서의 전문성이 신장되는 경험을 한다고 답한 사서들이 있었다. 사서가 도서관에서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료의 내용을 알고 특정 분야 연구동향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중요한 요건이라고 보고 있었다. 특히, 연구참여자들 중 한 명은 공공도서관 사서로 일하다가 대학도서관으로 이직한 사서였는데, 공공도서관에 있으면서 사서의 전문성에 대하여 상당 기간 고민했었다고 한다. 대학 도서관에 와서 장서개발 업무를 당당하면서 전문가로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또한 다른 연구참여자는 도서관 업무의 아웃소싱이나 기계화로 인해 사서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서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서가 자료를 장악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 (연구지원 서비스 후)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이 느껴진다든지, 자료를 추천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온다든지 ... 사서를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사서 D)

장서개발 담당사서들은 대체로 장서의 가치에 대하여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었다. 장서를 매개로 이용자와 소통하고 그 과정에서 이용자들로부터 전문가로 인정받으며,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고 답하였다. 장서개발 담당자가 직무의 전문성을 인식하는 요건들을 분석한 결과, 주관적으로는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경력 등과 함께 외부의 인식과 인정에 대한 요구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해당 학과의 학생, 교수, 연구진들이 장서의 직접적인 이용자이면서 사서의 직무수행과 전문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다. 또한, 해당 학과나 연구자들로부터의 전문성 인정 못지 않게 도서관 내 다른 사서들이나 행정직원으로부터의 인정, 대학본부로부터의 인정 등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지는 않지만 장서개발 담당사서가 전문 직능 단체나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전문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는 업무와 관련된 연구와 학술발표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지 등의 범주도 도출되었다. 장서개발 담당 사서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매체에 대한 지식을 전문 직능 단체나 협회, 기타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서 발표하고 공부하는 기회를 갖는 것을 중요한 요건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현재 KERIS의 워킹그룹 이외에 한국도서관협회나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등의 전문직 단체를 중심으로 장서개발, 자료조직 등의 단위 업무 발전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등이 기획되고 연구와 교류의 기회가 많아지기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4. 장서개발 담당사서의 전문성 요건 범주

이상에서 언급된 장서개발 담당사서의 전문성 요건 범주들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도출된 노드를 정리하여 장서개발 담당사서들이 인식하고 있는 전문성 요건과 범

주를 도출하였다. 구성은 3개의 상위범주와 13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37개의 의미단위로 구성되며 괄호 안의 숫자는 노드수를 표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비하여 구체적이고 사서들이 실제로 인식하는 중요도가 반영된 범주들로 볼 수 있다.

〈표 3〉 장서개발 담당 사서의 전문성 요건 범주

상위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문헌정보학 지식 (340)	자료 자체에 대한 지식(97)	자료에 대한 지식(54)
		출판동향에 대한 관심(19)
		자료선정 기준(24)
	이용자에 대한 지식(72)	이용자에 대한 이론적 지식(25)
		응대와 상담 기술(18)
		주제분야 이용자 정보행태(29)
	정보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12)	전자자원에 대한 지식(12)
	문헌정보학 지식, 학위 (68)	문헌정보학 학위, 상위과정 이수(47)
		지속적인 자기개발(11)
		계속교육 이수(10)
	경험적 지식(58)	사서 경력과 경험(28)
		연구 경력과 경험(12)
		이론과 현장의 종합력(18)
	도서관 법제에 대한 이해(33)	도서관 관련 법제 이해(22)
		보존, 폐기 관련 이해(11)
주제분야 지식(298)	주제분야 배경 지식(70)	전공, 부전공 여부(48)
		전공외 주제배경(22)
	주제분야 장서개발 프로그램 운영 (151)	주제분야에 대한 일반적 이해(46)
		대학 내 학과에 대한 이해(32)
		교과과정에 대한 이해(25)
		주제분야 학문동향에 대한 이해(27)
		리에종 기능(10)
		능동성과 커뮤니케이션(11)
	장서평가(41)	평가메뉴얼 작성(12)
		평가결과 보고(29)
	주제전문가로서의 숙련도(36)	장서개발 관련 연구 성과(17)
		보고서 생산 역량(9)
직업적 정체성(279)	사서로서의 정체성(69)	사서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 (43)
		현실적 대처능력(26)
	장서개발 전문가로서의 자부심 (68)	도서관의 핵심 기능 인식(48)
		사서의 전문성 신장(20)
	전문성에 대한 인정(142)	스스로의 책임감 (38)
		주제분야로부터의 전문성 인정(36)
		도서관 내에서의 인정(14)
		대학본부로부터의 인정(29)
		전문기능 단체 가입, 네트워크(9)
		연구, 발표기회, 공부하는 사서(16)

Ⅴ. 결론

1. 요약

대학도서관에서 장서개발을 담당하는 사서는 자료의 선정자, 자료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의 운영자, 장서평가자, 보존 및 폐기 프로그램 운영자로서 도서관 서비스의 많은 측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서양 대학도서관의 경우 장서개발을 담당하는 사서는 주제전문가(bibliographer)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으며, 도서관 내외에서 교수에 버금가는 수준의 인정을 받는다. 이들의 전문성이 궁극적으로 대학도서관 장서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곧 도서관 서비스의 성패로 이어진다. 이렇게 본다면 장서개발 담당 사서는 대학도서관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에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학도서관에서 장서개발은 여전히 순환보직에 의해 2-3년씩 거쳐가는 업무로만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학계에서도 장서개발이라고 하는 전문영역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이 연구에서는 장서개발 담당사서의 전문성 요건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장서개발 담당사서의 재교육과 훈련에 참고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 4년제 대학도서관에서 장서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8명의 사서들을 대상으로 질적 면담을 실시하였는데, 미국 ALA가 제시한 장서개발 담당사서서 훈련 가이드라인(Guide for Training Collection Development Librarians)을 연구대상에게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2시간 가량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나라 4년제 대학 도서관 장서개발 담당사서들이 인식하고 제안하는 장서개발 담당사서의 전문성 요건을 파악하였다.

면담 내용은 NVivo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코딩결과 생성된 노드를 대상으로 37개의 의미단위를 도출하고 이들을 13개의 하위범주로 묶었다. 이들 하위범주들은 결과적으로 3개의 전문성 요건의 상위범주에 소속되었다.

분석 결과, 장서개발 담당 사서들은 문헌정보학 지식, 주제분야 배경지식, 그리고 사서로서의 정체성을 중요한 3개의 범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헌정보학 지식에서는 자료 자체에 대한 지식, 이용자에 대한 지식, 문헌정보학 지식과 취득학위, 경험적 지식 등이 중요한 요건으로 제시되었다. 주제분야에서는 주제분야 장서개발 프로그램 운영 능력과 배경지식이 중요한 요건으로 제시되었는데, 의미단위에서는 주제분야 전공 또는 부전공 여부와 주제분야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중요한 요건으로 도출되었다. 직업적 정체성에서 사서로서의 전문성에 대한 인정과 책임감, 의미단위에서는 사서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과 장서개발이 도서관의 핵심기능이라는 데 대한 인식, 주제분야 교수나 연구원, 학생들로부터의 전문성 인정 등이

중요한 요건으로 제시되었다.

2. 제언

대학도서관 현장 사서들은 장서개발이 전문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는 반면, 우리나라 대학도서관들이 서양의 그것과 같은 연구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장서개발 담당사서의 업무가 전문 영역으로 자리잡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소수 의견이지만 연구에 참여한 사서들은 다년간 장서개발 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적 한계, 대학 본부와의 관계, 대학 도서관의 상황적 한계 등과 맞설 수 있는 사명의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으며, 많은 부분에 그 고민은 지속되고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 도서관에서 업무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그나마 전문성이 축적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많고, 특정 사서가 장서개발 업무를 장기간 맡을 경우 이로 인한 도서관 조직 내에서의 시기나 불협화음 등에 대한 우려도 언급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서들은 장서의 개발과 관리가 도서관 서비스의 향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 그리고 장서개발 업무야말로 도서관 사서의 전문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영역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장서개발 담당 사서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훈련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교육 훈련 가이드라인에 앞서 대학의 문헌정보학과에서 장서개발 분야의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대학 학부과정에서부터 장서개발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연구에 참여한 사서들 가운데에는 문헌정보학과 교육과정에서 장서개발 관련 수업이 개설되지 않아 장서개발 수업을 이수한 적이 없다는 사서도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장기적으로 학부과정에서 자료와 매체에 대한 지식, 장서개발 지식과 기술, 자료를 평가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주제분야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부전공, 복수전공 이수를 확대하고 나아가 융복합 교과를 구축하는 것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에서는 장서개발 사서가 지녀야 할 전문성의 요건들을 제시한 후 이에 대한 사서들의 의견들을 기반으로 실제 대학도서관 현장의 장서개발 담당 사서가 인식하고 있는 전문성의 요건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장서개발 담당사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할 경우 기초적인 자료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김성준. 2010. 사서교사 양성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2): 97-116.

김성준. 2013. 마국의 사서교사 전문성 평가기준과 도구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2): 103-121.

박옥남. 2011. 정리사서 전문성 재고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1): 95-116.

이연옥. 2005. 어린이사서의 역할과 전문성 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 · 정보학회지』, 36(3): 233-256.

이연옥, 장덕현. 2014. 다문화서비스 담당사서에게 요구되는 문화적 역량의 내용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 · 정보학회지』, 45(4): 253-276.

한국문헌정보학회 편. 2013. 『최신 문헌정보학의 이해』.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Abbott, Andrew . 1988. *The System of Profession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96. *Guide for Training Collection Development Librarians*. Chicago, ALA.

Mason, Richard. 1990. "What is an Information Professional?"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1: 122-138.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Kim, S. J. 2010.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System of Teachers' Training to Strengthen Teacher Librarians' Expertise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4(2): 97-116.

Kim, S. J. 2013. A Study on the Evaluation Standardsand Tools of the Performance of School Librarian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2): 103-121.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13. *An Introduction to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Lee, Y. O. 2005. Study on the Roles and Development of Professionalism of Children's Librarian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6(3):

233-256.

Lee, Y.O and Chang, D. H. Components of Cultural Competency for Multicultural Services Librarian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4): 253-276.

Park, Ok Nam. 2011. Rethinking Catalogers' Professionalism.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2(1): 95-116.